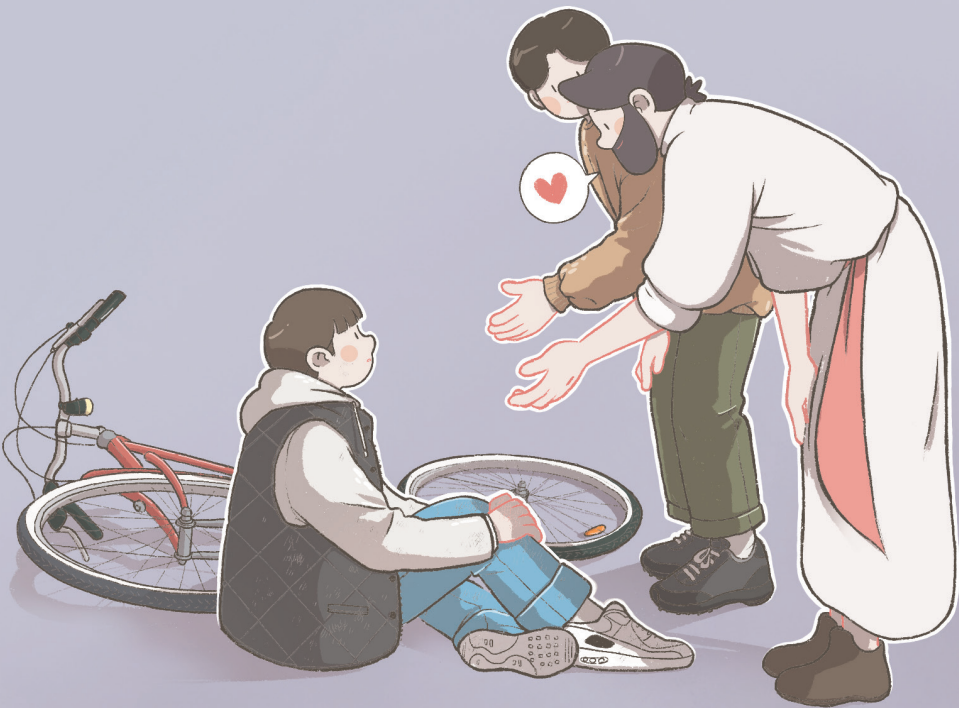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 주제성구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어긋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과 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Follower’로 부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봅시다.

두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방식을 배우고 익혀봅시다. 훈련이 몸에 익

은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Leader’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Follower’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Follower’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Follower’와 ‘Leader’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징

1) 양육

<Follower>는 예수님의 제자 됨을 목적으로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우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나눔

<Follower>에서 제자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경청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별 메시지를 듣고, 이해와 감정, 의지로 응답하며 살도록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과 제자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 응답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해 ‘I(image)카드’, ‘E(emotion)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I 카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E 카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넘어 다양한 나눔을 위해 'Q(question)카드'를 준비했습니다.

'Q 카드'는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드입니다.

제자 됨으로의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3) 단순

<Follower>는 구성의 단순화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필요한 소그룹 양육과 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각 과를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라는 구성을 통해 기도-나눔-배움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기도, 나눔, 배움을 통해 집중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법

<Follower>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매주 한과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도자는 미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본 교재의 각과 진행 순서는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입니다.

- IN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 OPENING의 가벼운 삶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 MEETING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 FOLLOWING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가집니다.
- OU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과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로 들어가,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함께 기도로 나오는 과정을 익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인 틀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과와 관련된 기도문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에 소개된 ‘두 문장’을 통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 계

1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2~3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 4~5권은 교회와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1권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며, 이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갑니다.

3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2~3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힙니다.

4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알아갑니다.

5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4~5권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 | | | |
|----|---|------|
| 01 |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롬 1:3 | ● 09 |
| 02 | 나를 봐! 요 13:15 | ● 13 |
| 03 | 요약한다, 두 가지만 기억해! 마 22:37-40 | ● 17 |
| 04 | 집중, 하나님의 뜻! 마 6:33 | ● 21 |
| 05 |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요 8:31-32, 딤후 3:14-17 | ● 25 |
| 06 | 너의 소리가 들려 마 6:9-13 | ● 29 |
| 07 | 나와 함께 걷는 법 히 5:8-9 | ● 33 |
| 08 | 결론은 말이지 요 13:34-35 | ● 37 |
| 09 | 우리는 모두 소중해 마 7:12 | ● 41 |
| 10 | 서로의 틈을 때우는 길이 있어 마 18:21-22 | ● 45 |
| 11 | 선한 이웃이 되어줘 눅 10:25-37 | ● 49 |
| 12 | 허무하지 않은 삶을 위해 요 15:8 | ● 53 |

세 가지 카드 만나기



옆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카드(PDF)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emotion)을 다양한 카드 속에서 찾아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나의 느낌을 말 대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question)을 넘어 더욱 다양한 물음을 묻고 나눌 수 있습니다.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3)

INTRO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세요.

OPENING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Card

E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학생이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말트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좋은 분이긴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달리 신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과 여러 면에서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말씀과 일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고, 자라며, 몸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마 4:2). 예수님도 오랜 일정 속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쉬고 먹을거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요 4:6). 예수님이 힘을 쏟아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 배를 타고 갈 때에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막 4:38).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 11:35).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혹들을 마주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히 4:15).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의롭고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향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주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결코 멀지 않습니다.



- ✓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면서 완전한 무엇이셨나요?
- ✓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같았던 점,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 (1)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이미지로 표현해 보세요.



- (2)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와 같은 세상에 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 캐릭터를 그려봅시다.

- (3)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나를 보!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닦고 싶은 롤 모델(role model)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벤치마킹’은 전 세계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제화공이 신발을 맞출 때 그 맞춤 틀인 ‘벤치’에 고객의 발을 올려놓고 신발 모양을 측정하던 행동에서 이 말은 유래되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그 장점을 보고 배우는 일을 일컫는 말로 기업에서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벤치마킹하듯 잘 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며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고 싶다면, 탁월한 강연자의 행동이나 아나운서의 발음을 따라해 보면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어진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좋은 본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 하면서 잘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흠 없이, 의롭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

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3:15).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마 5-7장)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긋난 세상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본이었습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익혔습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분투했습시다.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봅니다. 나침반은 늘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 ✓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본은 누구인가요?
- ✓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1)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3) 좋은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한 문장을 써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약한다, 두 가지만 기억해!

마태복음 22장 37-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 혹은 한 명의 학생이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을 말로 설명합니다. 나
머지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지도를 그립니다. 다 그린 후에 서로의 지도를 비
교해 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app)을 열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확인합니다. 길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삶의 지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율법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 조항의 개수를 세어보면 613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613개의 조항을 10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0개의 율법은 십계명이라 불립니다. 십계명은 내용에 따라 1-4계명과 5-10계명으로 구분됩니다. 1-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5-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2개의 계명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2:34-40).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를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흔적, 이웃을 사랑하신 흔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지도이며, 걸어 가야 할 길입니다.



-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나요?
- ✓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답하셨나요?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2)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 가지씩 찾아 나눠봅시다.

(3) 나는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적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집중,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하나님,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
세요.



둘 중 더 나은 것은?

- ① 등교했는데 개교기념일 vs 등교 안했는데 학교 축제
- ② 이어폰 없이 등교하기 vs 핸드폰 배터리 10% 등교하기
- ③ 제일 일찍 등교하기 vs 제일 늦게 학교가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 ‘나’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감정, 욕심, 계획, 경험을 우선 생각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막 8:34). 이는 ‘나 중심의 삶’ 즉 하나님과 어긋나 살아가던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던 나를 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잡한 일들 속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지내기 쉽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정에 맞게 살아갈 때 방황과 고민이 끝납니다.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그 우선순위를 두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있던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자리 잡은 삶입니다.



- ✓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 최근에 내가 한 선택 중 잘한 선택과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2)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그때의 감정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옮기지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주세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성경)

요한복음 8장 31-32절, 디모데후서 3장 14-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이유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써서 준다면 어떠한 말을 쓸 것 같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써서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고백하며, 상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어떤 행동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알려주며,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함께 쌓아왔던 일들, 그때의 감정과 깨달음을 적으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언을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신 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며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담겨진 명령과 약속들과 함

게 사셨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에 담고,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것과 교회 속에서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겁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의미를 헤아려보고,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 ✓ 성경에 담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1)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고 난 후 어떤 감정이었나요?

성경은 내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2)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3) 성경 읽기를 결단해 봅시다. (기간, 분량)

나는 () 동안 ()에서부터 ()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주세요.

너의 소리가 들려 (기도)

마태복음 6장 9-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모인 친구들 중 하나님 역할을 맡을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말씀을 해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을 걸 듯 이야기를 해봅시다. 질문, 고백, 감사, 부탁 등 다양하게 말을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까요? 효과적인 소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에 맞게 질문하는 법,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과의 관계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건네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시간을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허공에서 흩어지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말 걸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한 태도로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의 뜻이 온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다양한 결핍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결핍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나만의 양식을 넘어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과 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맺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실천을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기도드릴 때, 기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과 정신도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 ✓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 ✓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 기도는 나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2)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속 네 개의 간구 중,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간구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이야기해 주세요.



(3)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걷는 법 (순종과 의지)

히브리서 5장 8-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
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8-9)



하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
세요.



순종 게임을 해봅시다.

- ①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술래 한 명을 정하고 술래가 아닌 사람들에게 귓속
말로 미션을 전합니다.
(윙크하기, 머리 긁기 등 간단한 행동을 미션으로 제시합니다.)
- ② 술래에게는 미션은 말하지 않고 '술래'라고만 귓속말 합니다.
- ③ 게임이 시작되면, 주어진 시간 동안(1분) 술래를 제외한 사람들은 자연스
럽게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술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술래가
아닌 척 해야 합니다.
- ④ 1분이 지난 후 누가 술래인지 투표합니다. 다수결로 술래가 걸리면 모두의
승리입니다. 술래가 안 걸리면, 술래는 다른 사람들의 미션 행동이 무엇인
지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면 술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반에 배정되면,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맞춰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율하는 시간이 없다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동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 대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기대하셨습니다.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고, 의로운 삶 대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유혹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제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과 의지함,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었나요?

✓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하는 삶, 하나님을 □□하는 삶



(1)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경험과 그때의 감정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2) 나는 언제,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왜 의지하지 않았나요?

(3)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반대의 경우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수님, 순종과 의지함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결론은 말이지

요한복음 13장 34-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두 명씩 짝을 지어봅시다.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고 한 번씩 번갈아가며 ‘사랑해’라고 말해봅시다.
기분이 어떤지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대형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서론, 본론,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섬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마22:34-40). 십계명의 5-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5-7계명은 부모와 자녀, 형제, 부부,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8-10계명은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더 선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요일 4:7-8).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하십니다(요일 3:24).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세상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 속에 알려집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사랑을 늘 결론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 ✓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섬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나는 사랑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2) 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대하게 되었나요?



(3)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나요?

나는 어떠한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서로의 가치를 찾아주는 가치감별사가 되어 봅시다. 서로에게 칭찬할 내용을 3가지씩 발견하여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 끝난 후에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했는지 나눠 봅시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쓰레기 불법 투기로 문제가 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에 경고 팻말을 세워두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투기 장소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이어지던 쓰레기 불법투기가 멈췄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그곳을 쓰레기통처럼 여겼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수고와 정성이 심겨진 화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는 누군가의 작품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곳은 존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던지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쓰레기통처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존중’은 ‘서로 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존중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존중은 나에게만 집중된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이 있으면 서로에게 쓰레기를

던지듯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마음에 아름다운 선물을 놓아두려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와 더불어 품어야 할 고백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심에도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와 더불어 타인의 가치를 알아가며, 서로 존중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은 천국의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함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서로 존중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 ✓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 서로 존중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1) 나는 언제 존중을 받는다고, 또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존중받을 때,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 때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2) 집, 학교나 학원, 교회에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서로 존중’은 무엇이 있을 까요?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3) 서로 가치를 발견해 주고 존중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미지로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서로 존중의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해주세요.

서로의 틈을 메우는 길이 있어

마태복음 18장 21-22절

그 때에 페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1-22)



하나님,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는지, 왜 그런지 나눠 봅시다.

우리는 사과하며, 용서하며 살고 있나요?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있나요?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서먹해진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집에서, 학교에서 이런 저런 다툼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서로 간에 틈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써내려가고 싶지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긴 마음의 틈은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이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진실한 사과에 품 넓은 용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과와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서로 존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과와 용서는 폭력과 아픔을 주고받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사랑의 구체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를 준 상대의 아픔을 깨닫고 상대에게도 사과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들은 사람의 삶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피해에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명하셨습니다. 폭력은 피해자에게 복수심과 원망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끊임없는 폭력의 반복과 원망의 굴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니다. 모든 이의 영혼이 피폐해진 후에야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동안의 모든 악한 고리들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참된 회개와 사과도, 참된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단과 더불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참된 화해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용서를 명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생긴 틈을 끊임없이 메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일에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용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된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서로의 틈을 메워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 ✓ 참된 회개에는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 ✓ 참된 용서를 위해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1)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어떠한 일로 사과를 했는지, 사과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이 잘 되나요? 혹시 사과와 용서가 어렵다면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동안 사과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나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번 주에 이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사과하고 용서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과와 용서를 통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이웃이 되어줘

누가복음 10장 25-37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36-37)

INTRO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OPENING



긴 젓가락과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긴 젓가락이 없다면 나무젓가락 두 개를 이
어도 됩니다.)

긴 젓가락으로 간식을 서로에게 먹여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
라 상대방을 먹여주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즐겁게 간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인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의 힘, 시간, 돈,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못 본 척 무시할까? 도와줄까?’

반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럴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길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하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오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만 좋은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함께 좋은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돕는 일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돕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 ✓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해주었나요?



(1) ‘도움’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나요?



(2)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지금 어떤 도움이 서로에게 필요한지 말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도움 일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도움이 잘 맞는지 알아봅시다.

(3)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도울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세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위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8)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봅시다.

- ① 먼저 뿌리, 줄기, 열매가 그려진 나무 그림을 준비합니다.
- ② 그 위에 내가 맺고 싶은 열매(목표, 꿈, 비전 등)를 적고, 그 열매를 왜 맺고 싶은지(동기, 이유)를 뿌리에 적습니다.
- ③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나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줄기에 적어 서로 나누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겐 끝이 있습니다. 한 학년을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시간동안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세요. 내 삶의 흔적을 객관적으로 마주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반대로 기대했던 열매들이 없거나 나쁜 열매들이 맺혀있다면 안타깝고 답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대신 미움과 시기, 질투, 무시의 열매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랑, 그

열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도 맺히지게 하십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깨어졌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끝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전하며,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 ✓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OO 맺는 삶입니다.
- ✓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1) 지난 여섯 달 동안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나요? 앞으로의 여섯 달 동안 어떤 열매들이 맺히길 원하나요?

(2) 내 삶에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일을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발행일	2025. 3.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김두범
기획	조성환 이상숙 신혜경 이상지
집필	정승환 오선주 이반석 이태진
감수	박찬웅 양성진
그림	김유림
교정교열	조윤정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통

〈비매품〉